

보도시점 배포 즉시
(사진 14시 이후) 배포

2026.9.9.(수)

“공공생리대,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 조달청, ‘모두의 생리대’ 생산현장 찾아 품질·안전관리 점검
- 원자재 입고부터 제조·포장·품질검사까지 전 공정 집중 점검

조달청은 9일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깨끗한나라 주식회사(대표 이동열)를 방문해 공공생리대의 생산·품질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정부가 올해 7월부터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모두의 생리대)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품질과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깨끗한나라 주식회사는 ‘모두의 생리대’ 공급사로 선정돼 12개 시범지역에 공공생리대를 공급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날 생산 현장에서 원자재 입고부터 제조, 포장, 완제품 품질 검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펴보고, 생산 공정별 위생·품질관리 체계와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관리 현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생리대 생산라인을 직접 둘러보며 원자재와 완제품의 품질관리 과정, 제조공정 관리, 검사 체계 등을 점검하는 한편, 공공조달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조달청은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공공생리대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조달 물품에 대해서도 품질과 안전 중심의 관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공공생리대의 품질과 공급 안정성은 국민의 건강한 일상과 직결된다”라고 강조하며,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생리대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조달품질원 품질점검과	책임자	과 장	김 해 영	(054-716-8064)
		담당자	사무관	조 홍 철	(054-716-8189)

